

SK, 경영권 사수 “명분쌓기” 총력

SK 사외이사, 소버린 주장 전면 반박 ... 3월 주총 개정안과 차이 없어

최근 소버린자산운용과 갈등을 빚고 있는 SK의 사외이사들이 2일 소버린의 주장에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SK 이사들이 11월5일 이사회를 열어 소버린이 요구한 임시주주총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SK 사외이사 7명 전원은 11월2일 소버린의 자회사이자 10월25일 SK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크레스트 시큐리티 트리미티드(Crest Securities Limited)에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소버린은 10월25일 기소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이사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형사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이사의 자격을 박탈하고 기소된 이사는 형의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정관변경을 요구했다.

SK 사외이사들은 질의서에서 “주주가 요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건에 대해 이사회 70%를 차지하는 사외이사 7인은 결정을 내리기 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몇가지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게 됐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외이사들은 “주주가 요청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은 실질적으로 200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돼 부결됐던 <정관변경 개정안건>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지적한 뒤 “2005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 앞서 반드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급박하게 요청한 이유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소버린이 10월25일 보도자료에서 “2004년 6월 소버린은 문제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SK 이사회 대표자들을 만났으며 이사 개개인에게는 서면으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고 한데 대해 “사외이사들은 누구도 소버린을 만난 사실이 없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받은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사외이사들은 또 “SK 이사회가 기업의 건강한 기능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문제를 다룰 능력과 진정한 의지가 없으며 SK의 기업지배구조 변화는 순전히 일반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외양만의 변화일 뿐”이라는 소버린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사회 활동내용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폄하하는 듯한 언급을 한데 대해 매우 뜻밖이고 유감”이라면서 이에 대한 근거를 요구했다.

또 소버린이 “기업지배구조와 회사 경영진 관련 당면이슈들이 SK가 보다 높은 가치를 실현하고 주주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최근 SK의 사업실적 및 주가 등이 현저하게 개선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소버린이 주장하는 이슈들은 SK의 기업가치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또한 그렇게 생각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외이사들은 질의서 공개에 대해 “언제든지 소버린을 포함한 모든 주주들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임시주주총회 개최는 엄청난 비용과 경영 에너지가 요구되는 사안이며 전체 주주의 이익에 관련된 중대한 일인 만큼 이사회는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투명성도 내세웠다.

<화학저널 2004/11/03>